



새만금청·개발공사·입주기업, 사랑의 헌혈 행사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가 21일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번 헌혈 행사에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기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숲에코썬의 한 직원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에 참여해 기쁘다"면서 "비록하나 혈액 수급난 극복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매년 2회에 걸쳐 단체 헌혈을 시행하고 있으며, 헌혈 외에도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행사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입실 지사면, 지사랑 골프회, 창립총회 개최

지사랑 골프회 창립총회가 지난 19일 지사면 복지회관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이종철 지사랑 골프회 창립추진위원장 송기찬 지사면장, 김병이 입실군체육회장 전홍국 지사면 이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사랑 골프회는 이종철 창립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창립총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회원 34명의 정식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회장 및 부회장으로 이종철 회장과 안형선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이후 골프회는 각종 친목 행사 및 대회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기찬 지사면장은 "지사랑 골프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뜻 깊은 날을 맞아 지난 2년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앞으로 활발한 골프회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회원 간 화목을 돈독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실·전홍국 기자

전북개발공사, 남원 산덕마을서 농촌 일손 도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1일 1시간 자매결연 마을인 남원시 운봉읍 산덕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됐으며, 임직원 30여 명이 수확작업, 파프리카 적엽작업, 마을 환경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2007년부터 15년째 도내 소외지역과 자매결연하여 매년 봄·가을 영농기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마을 복지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농촌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덕마을과는 지난해 새로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던 마을 주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에 일손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와줘서 한시름 덜게 됐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온누리티에스, 군산시 삼학동 착한가게 동참

군산시 삼학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명옥)가 온누리티에스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온누리티에스는 동물 사료 운송 업체로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매월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게 된다. (주)온누리티에스 박준호 대표는 "착한가게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나눔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더욱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시 소중한 모금액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갑곤 기자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

전주농협, 2021년 사무소·개인부문 수상 쾌거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2021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와 개인부문에서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NH손해보험사업 평가는 전국에 소재한 약 1,120여개 농·축협을 사업규모에 따라 2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업규모가 제일 큰 농협들로 구성된 A1그룹에서 전주농협이 연도대상(1위)을 수상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의 농·축협 중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전주농협은 보험 사업을 선도하는 농협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같은 날 실시된 직원개인에 대한 평가에서 전주농협 '임성수'(호성지점), '박소민'(평화지점), '류제학'(원산지점), '김영선'(화산로지점), '오준영'(서부지점), '윤동호'(신용사업부) 등 총 6명의 직원이 개인



별 연도대상을 수상해 그 기쁨을 더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전주농협이 이번에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농민조합원님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 보증을 잘 안내해드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농민조합원님들과 일반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김도환 교수, 대한화학회 '입재물리화학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도환 교수(과학교육학부)가 우리나라 물리화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화학회에서 주는 '2022 입재(入齋)물리화학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은 회원 수 7천여 명에 이르는 대한화학회가 물리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통해 관련 학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카이스트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15년 전북대 교수로 부임해 에너지 및 신소재, 반도체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응용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2년 간 세계 최상위 저널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1편,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에 4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3편, 'Nano Energy'에 4편 등의 논문을 게재했다.

특히 지난해 'Nano Energy'에 게재된 논문은 계산화학적 설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전해 촉매를 개발하고, 그 성능에 기여하는 근본 원인을 양자화학적으로 밝힌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김 교수는 지난 4월 15일 열린 시상식에서 전산설계를 통한 수전해 및 에너지 저장용 촉매 연구라는 제목으로 수상 기념 강연을 펼쳤다.

김도환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도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연구자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멕시코 2개 대학과 국제교류 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남찬현)는 20일 멕시코 캄페체 자치대학교(이하 UACAM), 국립과학기술교육원(이하 IPN)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제교류 협약 체결식에는 남찬현 총장과 진동환 IPN 교수, 김동주 국제교류위원장 윤순철 태권도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석대는 국제교류원과 태권도연구소를 중심으로 UACAM·IPN과 학술 및 학점 교류 등 단기 프로그램 진행, 태권도 인턴십 및 세미나 공동 개최,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공동 연구 수행 등에 나설 계획이다.

남찬현 총장은 "국제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학술교류 등을 시작으로 UACAM·IPN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UACAM은 멕시코 캄페체주 캄페체에 있는 주립 종합대학교로 3개 대학과 6개 학부로 구성돼 있으며, 공립 종합대학교인 IPN도 78개 직업 교육과정과 80개 학사 학위, 135개 대학원 학위 과정 등에서 17만여 명이 수학하고 있는 멕시코 최대 규모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정은성 기자



합대학교로 3개 대학과 6개 학부로 구성돼 있으며, 공립 종합대학교인 IPN도 78개 직업 교육과정과 80개 학사 학위, 135개 대학원 학위 과정 등에서 17만여 명이 수학하고 있는 멕시코 최대 규모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정은성 기자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 단합과 소통의 장 마련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동장 이상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성곤)는 지난 20일 혁신동 주민센터에서 지역구 의원, 동 주민센터 직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 지역구 의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단합과 마음치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마음치유 일환으로 진행된 원예치료 수업은 김미란 상담치료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김미란 강사는 "이번 워크숍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장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곤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가 화합하고 개개인의 소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동고사, 풍남동에 사랑의 백미 10kg 30포기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동고사(주지 김형민)는 21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풍남동 주민센터(동장 박상현)에 백미10kg 30포기를 기탁했다.

동고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백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고사는 매년 백미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동고사 주지 김형민 스님은 "기부한 백미가 부처님의 자비처럼 풍남동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교총-예수병원, 종합건강검진 업무협약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와 전주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지난 20일 교총 회원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종 회장을 비롯해 오한섭 사무총장, 박흥근 부장, 조충환 건강과학센터장, 오정석 수석팀장, 박재홍 팀장, 김현정 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종합건강검진 검진비용을 회원과 가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할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주예수병원은 국내 최고 민간의료 선교병원이자 호남 최초 근대 의료기관으로,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 재활센터가 신축 예정이다. 또 암센터를 증축했으며, 최첨단 의료장비 및 전산시스템 등을 도입해 갖춘 종합병원이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력 증진과 교육가족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첨단 의술과 따뜻한 케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지원 협약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가 21일 (주)나루풍경(대표 김준호), (주)더치름(대표 임혜영), (주)대영(대표 최은서), (주)오핀(대표 정태진), (주)해음심리상담센터(센터장 안인숙) 등 전북예비사회적기업 및 지역업체 등과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업체들이 분야별로 지원을 하지는 내용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목공예, 바리스타체험 등 현장전문가에게 배우는 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업체는 사정촬영 및 편집 상담지원과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주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은 총 117개 기관, 224명으로 구성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법률자문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순창 농산물가공센터·자봉센터, 기부 행사 펼쳐

순창군이 지난 20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 내 홀몸 어르신 200세대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창업인들의 가공제품 꾸러미 나눔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 기부 활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가공창업인이 만든 제품 200세트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 찾아 인부를 전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에 참여한 가공창업 업체와 품목은 △희나리목장 번수기 대표의 희나리요거트 △덕산농회 이라진 대표의 볶음평평 △순창농부 정필승 대표의 현미누룽지 △순창쌀영농농조합 임종우 대표의 쌀엿조청 △하마바를 안원원 대표의 하마강정 △농가맛집 이정순 대표의 장구묵 누룽지다. /순창=이양원 기자